

세계적 관점의 철학사들

라인하르트 코젤렉 프로젝트. 2019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독일 연구 협회 (DFG)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책임자: 롤프 엘버펠트 교수 (Prof. Dr. Rolf Elberfeld)

홈페이지 (독일어): <https://www.uni-hildesheim.de/histories-of-philosophy/>

홈페이지 (영어): <https://www.uni-hildesheim.de/en/histories-of-philosophy/>

세계화의 과정은 현재만이 아닌 역사 또한 점점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역시 그 관찰방식과 연구주제를 세계화의 과정과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나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 세계화의 지평에서 재문제화하고 재개념화해야 할 실제적 필연성이 존재한다. (Mersmann / Kippenberg 2016)

우리의 과거를 인문학적으로 재문제화·재개념하는 작업은 인문학 영역 내에서는 예컨대 세계사라는 틀에서 점차 명료한 형태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 교류사로서의 세계사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Reinhard 2016, Osterhammel 2009, Conrad 2013).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들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류사적 요소가 더욱 강화될 미래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철학과 그 역사기술에는 연구 및 혁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는 2018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 이후 더욱 첨예해졌다. 한 예로 베이징 세계철학대회에서는 공식언어로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가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20세기의 사상지평은 점진적으로 세계화되었으나, 유독 철학사에 대한 인식만은 그 발전양상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세계적 철학함의 형태들까지도 포함하는, 결과에

열려있는 새로운 철학사의 상상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문제분석, 새로운 묘사양식, 내용적-제도적 귀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1.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고안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철학을 순전히 유럽적 프로젝트로 양식화해오던 배제장치에 대한 분석.
2.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생겨난 문헌학 - 예컨대 인도학, 중국학, 일본학, 아랍학, 유대학 등 - 과 협업 하에 발생한 철학사에 대한 연구.
3. 유럽어 및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비유럽언어로 유럽철학과 비유럽철학에 대해 쓰인 철학사에 대한 연구.
4. 철학사에 있어서 번역과 수용과정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교류사적* 관점의 구상.
5. 지금까지 세계적 철학사기술에 존재했던 구상들을 연구하고, 과거에 전개되었던 지평들을 새로운 철학사의 상에 포함시키는 작업.
6. 철학사 기술에서 철학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민족”, “국가”, “종교” 그리고 “대륙”, “동양/서양”, “시대”, 여러 “언어”, “문화”, “젠더”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조사.
7. 20세기 이후 철학이 세계적으로 학문 분과로 제도화된 과정과, 그것이 철학 교육 및 연구에 끼친 영향에 대한 조사.
8. 철학의 학문 제도화와 연관하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학술대회 - 예컨대 “세계철학대회” - 의 체계를 철학의 세계화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작업.
9. 철학의 정전화正典化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래적 경향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전세계 철학과들의 강의목록과 “세계철학사”에 대한 수업이 오늘날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현재 철학이 세계적 관점에서 가지는 자기묘사 양식에 대한 연구.
10. 철학의 세계적 발전 현상에 있어서 “철학”이라는 단어/개념에 대한 재논의.

1.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고안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철학을 순전히 유럽적 프로젝트로 양식화해오던 배제장치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는 18-20 세기 유럽에서 철학사 기술記述의 생성을 비유럽적 전통들을 포함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한 야콥 브루커가 18 세기에 독일어로 저술한 철학사에서 “히브리인, 칼데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사바인, 페니키아인, 이집트인, 무어인, 리비아인, 켈트인과 독일인, 로마인, 스키타아인, 게테인, 트라키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중국인, 일본인의 철학” (Jakob Brucker 1731-36, 1 권)을 포함시켰다면, 알베르트 슈베글러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철학사* (Albert Schweigler 1848, 17 판 1950)에서 고대로부터 근대 헤겔에 이르는 철학만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당시 철학사에서 비유럽적 요소를 급진적으로 “청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슈베글러의 묘사는 종교와 관련 있는 사상 조류를 전부 배제하는 경향의 한 극단을 보여준다. 그의 구상은 프란츠 마틴 빔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단히 “유럽일원적” (Wimmer 2017)으로, 즉 철학은 유럽 고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부터 신플라톤주의까지)와 유럽 근대 (브루노부터 헤겔까지)에만 존재한다는 견해에 해당한다. 철학사 기술은 18-20 세기 유럽에서는 이러한 양극 사이만을 움직였다. 우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Park 2013, Schneider 1990, Wimmer 1990 등) 기반으로 한 개별 연구들을 통해서, 비단 비유럽적 요소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유럽 철학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는 아랍-이슬람과 유대교 철학까지도 어떤 정당화 및 묘사 전략을 통해 18-20 세기 유럽의 철학사 기술에서 배제되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아랍과 유대 철학을 배제한 역사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는 바 (Hasse 2016), 과거의 담론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생겨난 문헌학 - 예컨대 인도학, 중국학, 일본학, 아랍학, 유대학 등 - 과 협업 하에 발생한 철학사에 대한 연구.

전문철학 내의 역사기술의 주류에서 “비유럽적인 것”을 배제함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인도학, 중국학, 일본학, 아랍학, 유대학 등 다양한 문헌학 분과들이 발달하였다. 이 분과들에서는 고전문헌학 (고대 그리스어 및 라틴어)을 모범으로 삼아 여러 전통의 정전에 해당하는 옛 텍스트를 공부하였는데, 이 텍스트들은 대체로 철학적/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전문철학의 외부에서* 인도, 중국, 불교, 아랍, 유대 철학사에 대한 연구전통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양상을 보면, 유럽 내에서 두 갈래의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철학사 기술記述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한편으로 유럽 철학과 그에 속하는 철학사 기술은 – 몇몇 적은 예외들을 제외하면 – 19세기부터 거의 순전히 유럽 철학사만을 취급하였으며 ,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수한 세부담론들로 분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수준의 철학사 기술의 전통이 예컨대 인도, 중국, 유대, 아랍, 불교 철학의 영역에서 발전하였으나, 이는 전문철학 측에서 거의 인지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인지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철학사기술의 이러한 두번째 갈래가 생성된 과정을 분석하고, 그 철학적 동인과 묘사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세계적 지향을 가진 철학사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어 및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비유럽언어로 유럽철학과 비유럽철학에 대해 쓰인 철학사에 대한 연구.

특히 20 세기에는 인도, 중국, 일본, 아랍국가 등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된 다양한 철학사 기술 전통들이 발생했으나, 이는 유럽 내에서는 독립된 철학사기술로 인정받는 일이 드물었다. 예컨대 수렌드라나트 다스굽타 (1887-1952)가 인도철학, 평유란 (1895-1990)이 중국철학, 하지메 나카무라 (1912-1999)가 일본 사상사, 마지드 파키 (1923 출생)가 이슬람 철학에 대해 각각 포괄적인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 전통의 용어가 각기 다르게 형성되며,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틀 또한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로 된 철학사 기술은 아주 당연하게도 중국 사상의 시작점 (기원전 10-6 세기)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 철학은 1868년 경부터 유럽철학을 수용하면서 일본 내에서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 고대 전통은 “사상사”로 기술된다. 인도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 이후 지식인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철학사가 영어로 기술되어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로 쓰인 철학사 묘사가 20 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랍어로 쓰인 철학사 묘사는 10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어 문헌에는 중국 철학 유파들에 대한 소규모의 묘사들을 이미 장자 (약 기원전 4 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불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어로 쓰인 철학사 기술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한데, 20 세기 초반부터 유럽

철학사 뿐만이 아니라, 중국 철학사, 불교 철학사, 인도 철학사 등이 일본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중국어로 된 연구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묘사들에 있어서 유럽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을 뿐으로, 첫 단계에서 다양한 사상 전통의 자료를 수집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철학사에 있어서 번역과 수용과정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교류사적* 관점의 구상.

세계적 관점에서는 철학사를 그 시작점까지 추적하는 교류사적 관점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철학의 시작점” 또는 “철학의 시작점들”은 그 자체로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연계의 경험은 약 30년 전부터 우리의 역사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계도 단순한 국가적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서 교류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연계와 세계화로 인식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틀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인류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적 교류사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분류와 경계들이 해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류사적 시도의 한가지 예는 옥스포드 후기 고대 핸드북 Oxford Handbook of Late Antiquity (Johnson 2012)로, 이 작업은 후기 고대라는 공간을 유럽, 아프리카, 중국에 이르도록 재개념화하고 있다. 철학사의 경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페르시아에서 스페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교류의 공간들이 지목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홀렌슈타인의 *철학의 세계지도* (Holenstein 2004)와 *사상의 교류사* (Elberfeld 2017b)은 이러한 시선에 선행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지금까지 세계적 철학사기술에 존재했던 구상들을 연구하고, 과거에 전개되었던 지평들을 새로운 철학사의 상에 포함시키는 작업.

오늘날 세계 철학사기술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과 구상을 더욱 정밀하게 연구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20세기 초반부터 종종 이전보다는 더 세계적인 지향을 가진 철학사기술의 관점들이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Wundt 1909, Jaspers 1957, Schilling 1964), 현재까지 세계철학사 *Global History of Philosophy* 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것은 1963년-1989년에 인도에서

5 권으로 출판된 John C. Plott 의 저작 한가지 밖에는 없다. 플롯은 여기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자기만의 시대 구분 체계를 구상했다. 시대 명칭에 있어서 그는 유럽 외에도 중국과 인도의 명칭들을 사용한다: 축의 시대 (1 권, 1963), 한·한-헬레니즘-박트리아 시대 (2 권, 1979), 교부·교父-수트라 시대 (3 권, 1980), 스콜라주의 시대 (4 권, 1984), 스콜라주의 시대 II (5 권, 1989). 이 구상은 완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계철학사에 있어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시대 구분 체계가 적절한지, 아니면 이와는 상이한 분류 형태도 가능한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통합적 시도의 또다른 예는 유네스코가 추진하여 1989 년에서 1998 년까지 불어로 출판된 보편 철학 백과사전 *Encyclopé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으로, 이는 폭넓은 시도를 통해 철학 담론 전체에 세계적 시선에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려는 구상이다. 또한 1990 년대 이후 영어로 출판된 것 중 “세계 철학 *World Philosophy*“ 또는 “세계 철학들 *World Philosophies*”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다양한 문헌들도 이에 속한다: Solmon (Ed.), *From Africa to Zen. An Invitation to World Philosophy* (1993); Cooper, *World Philosophies. An Historical Introduction* (1996). Deutsch (Ed.), *Introduction to world philosophies* (1997); Deutsch / Bontekoe (Ed.), *A companion to world philosophies* (1997); Scharfstein, *A comparative history of world philosophy. From the Upanishads to Kant* (1998); Smart, *World philosophies* (1998); Garfield / Edelglass (Ed.), *The Oxford Handbook of World Philosophy* (2011). 이러한 제목들이 보여주듯이, 영어권에서는 지난 25 년간 철학에 대한 묘사가 명확하게 세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유럽적 주제들만을 다루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유럽적 주제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별 문헌들에서 선택되는 주제는 저자나 펴낸이의 연구 지평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개별 구상은 그 자체의 개념 하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각의 문헌이 어떤 방법적 전략으로 포함과 배제를 수행했고, 어떤 철학적 귀결에 도달했는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철학의 세계사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또다른 접근법은 Ruth Hagenruber 와 Mary Ellen Waithe 이 이끄는 팀이 2018 년에 온라인 상에 공개한 프로젝트 여성 철학자들의 개념 축약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Concise Concepts by Women Philosophers* 이다.

(<https://historyofwomenphilosophers.org/ecc/#hwps>).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철학의 시작점부터 등장하는 모든 여성철학자들을 백과사전에 수록하여 그들이 철학 발전에 기여한 바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에 펴낸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세계 모든 부분의 여성 철학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철학사의 교류 양상을 탐지하려는 본 연구에서도 소외된 여성 철학자들의 통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구상은 엘마 홀렌슈타인 Elmar Holenstein 의 것이다. 그의 저작 철학 세계지도: 사상의 장소와 길들 *Philosophie-Atlas. Orte und Wege des Denkens* (2004)은 지도와 주석 텍스트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철학사를 그 발생 장소와 연계라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세계적 관점의 철학사기술을 이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프란츠 마틴 빔머가 선구적인 작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이론적 관점(Wimmer 1990)을 기반으로 하여 폴리로그. 다문화 철학 학술지 *Polylog.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s Philosophieren* 에 세계 철학사기술의 측면들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며, 선행 연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집결하고자 노력하였다.

6. 철학사 기술에서 철학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민족”, “국가”, “종교” 그리고 “대륙”, “동양/서양”, “시대”, 여러 “언어”, “문화”, “젠더”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조사.

18-19 세기만 해도 철학이 민족 단위로 체계화되는 일이 빈번했던 데에 반해 (그리스인, 독일인, 프랑스인 등, Brucker 1731-36) 20 세기 초반부터는 국민국가의 성립이 증가에 따라 철학 역시 “국민국가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시로 잔드포스 Sandvoss 는 그의 저작 *철학사 Geschichte der Philosophie* (1989) 에서 20 세기 철학사를 대체로 국민국가 위주로 다룬다.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에도 예를 들어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이 묘사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인도, 일본 외에도 세계의 다른 부분도 포함시켜서 예컨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남한, 이스라엘, 티벳, 이슬람권 국가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도 다룬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민족국가의 단위의 패턴을 따르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일반화의 이유 역시 나름대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과 국민국가 외에 철학사기술에서 구분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 철학 등에서 보이듯 종교가 있다. 이러한 구분기준들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성찰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또한 20 세기 철학을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른 구분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컨대 언어를 기반으로 중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영어 철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각각의 자연언어는 그 자체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질서 및 구분의 양식을 생성하며,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특정한 시선을 암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다. 여러 언어들의 접촉 등의 요소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들은 끊임없이 유동하며 그 안에서 다수의 가능성들을 촉발시킨다. 예컨대 라틴어는 그리스어 문헌의 번역을 통해서 철학의 매체로 변모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불교 영역의 중국어는 인도어권의 번역을 통해서 발달되었다. 이처럼 번역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들 내부에는 새로운 철학적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철학적 가능성들이 생성된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오늘날 특정 유럽어들이 철학 내에서도 특별한 권력위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예컨대 영어권, 불어권, 포르투갈어권 철학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아프리카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아프리카에서는 철학에 있어서 국가 단위의 구분은 큰 기능이 없으며, 그보다는 대륙 (아프리카 철학) 또는 식민지 언어나 토착언어/어족 (요루바, 이그보, 반투 철학 등) 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철학사를 언어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7. 20세기 이후 철학이 세계적으로 학문 분과로 제도화된 과정과, 그것이 철학 교육 및 연구에 끼친 영향에 대한 조사.

유럽의 확장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유럽 대학의 설립이 관찰된다: 1538년 산토 도밍고 대학, 1553년 멕시코 대학, 1595년 필리핀 대학, 1622년 산티아고 데 칠레 대학. 19세기 후반부터는 유럽을 모범으로 삼은 근대적 대학들이 일본, 중국, 인도에 설립된다: 1877년 동경 대학, 1898년 베이징 대학, 1922년 델리 대학. 특히 20세기부터 유럽대학과 학문 체계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이슬람권 국가들로 수출되는데, 이중 이슬람권 국가들은 그 자체로 이슬람 대학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튀니즈의 에스-지투나 대학 (737년), 마로코 페스의 알 카라위인 대학 (859년), 카이오의 알 아즈하르 대학 (975년). 재설립의 경우에는 유럽 대학들의 분교 개념이거나 (예컨대 런던대 *University of London*) 그렇지 않으면 유럽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설립되었다. 이 대학들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대학의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다. 철학의 경우에는 비유럽 대학들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유럽철학만을 가르쳤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것은 철학의 세계사가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유럽-북미 철학이 철학의 전범으로 승격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이 전세계적으로 이에 맞추어 제도화되고, 그 결과 수 세대에 이르는 철학자들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유럽 패러다임에만 국한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은 오늘날 점점 더 비판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며, “인식론적/사유적 폭력”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Santos 2016). 이러한 제도화 과정들과 오늘날까지 유효한 그 결과물들은 철학과 철학사에 있어서 적절한 비판적 검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8. 철학의 학문 제도화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학술대회 – 예컨대 “세계철학대회” – 의 체계를 철학의 세계화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작업.

위와는 다소 반대되는 제도적 움직임은 국제학술대회들 (1900년 세계철학대회, 1913년 세계미학대회, 1919년 범아프리카 학술대회, 1939년 하와이 “동서철학자학회 East-West-Philosophers-Conference” 등)에서 보이는데, 이들 행사들은 1900년 이후 철학 스펙트럼의 확장과 세계적 담론 형성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세계화에 공헌하였다. “세계철학대회”의 발전양상을 예로 들자면 여기에서는 인도, 중국, 일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의 철학자들이 철학이라는 무대에 등단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철학 분야 세계학술대회에서

보이는 지역과 내용 면의 다양성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룩된 것이다. 따라서 비유럽/비북미 철학들과 그 대표자들이 세계적 철학담론에 서서히 통합되고 교류가 강화되는 과정과 해당 간행지의 성립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여러 지역 간의 협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학술대회들의 역사를 관찰해야 한다. 오늘날 철학 역시 세계적 연결이 가속화되는 기간에 있으나, 이러한 철학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거의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 철학의 정전화正典化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래적 경향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전세계 철학과들의 강의목록과 “세계철학사”에 대한 수업이 오늘날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현재 철학이 세계적 관점에서 가지는 자기묘사 양식에 대한 연구.

오늘날 철학의 자기묘사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상을 넘어서서 오늘날 전세계의 제도화된 철학과들에서 어떤 “철학사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세계적 시선에서 철학의 “정전화正典化”에 대한 질문을 새로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철학사를 묘사하려는 모든 시도는 동시에 하나의 “철학의 정전”을 구축하게 된다. 정전화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주로 학문의 탈식민지화와 지금껏 소외되었던 지적 전통들과 그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문제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학문적 정전이 본질적으로 유럽-북미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 타지역 철학자들의 기여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철학사의 정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철학사를 묘사하며 구축되는 정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 대학들의 커리큘럼에 반영되며, 이는 유럽 및 북미를 벗어나서도 적용된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비교적 쉽게 가능한 전세계 철학 정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관련 데이터(커리큘럼, 강의계획 등)를 수집하고, 그 중 유럽-북미 철학의 지평을 넘어서고 확장시키는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두번째 단계에서 교육과 연구에서 드러나는 경향들과 구체적인 협업가능성의 측면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된다. 이어 세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현재에도 다양한 철학적 전통들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전세계 철학 대학들을 유동적인 지도의 형태로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로 이루어질 워크숍에서 철학의 정전에 대해 세계적 지향을 가진 질문들이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0. 철학의 세계적 발전 현상에 있어서 “철학”이라는 단어/개념에 대한 재논의

마지막으로는 “철학”이라는 단어/개념을 새로이 점검해야 한다. 구전으로 전승된 철학 전통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철학과 지혜의 관계, 또는 “반투-철학”이나 “잉카-철학”과 같은 “민족철학적” 구상이 세계적 관점의 철학사기술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재고되어야 한다. 유럽 철학 내에서도 “철학”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전혀 일정하지 않은 바 (Eiberfeld 2006), 세계적 관점의 철학사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철학”의 용법은 새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철학”이라는 개념이 지난 100 년 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에서 수용되었으며, 예컨대 일본어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철학사들이 기술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세계적 시선에서 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를 시사한다.

본 프로젝트는 5 년의 연구기간을 가지고 계획되었으며 2019 년 4 월 1 일부터 2024 년 4 월 1 일까지, 룬프 엘버펠트 교수의 지도 하에 힐데스하임 대학교에서 수행된다. 5 년의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 여러 언어로 쓰인 모든 종류의 철학사들과 기존의 세계적 관점을 가진 철학사를 포함하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한다.
- 다문화 지향 커리큘럼을 보유한 철학 대학들의 데이터뱅크를 구축한다.
- “세계적 관점의 철학사” 정초의 구상과 필수적인 방법론적 성찰을 포함한 단행본을 출판한다. 이 책은 입문 수준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학사에 대한 관점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초년부터 이미 세계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Brucker, Johann Jacob: *Kurze Fragen aus der philosophischen Historie vom Anfang der Welt bis auf die Geburt Christi, mit ausführlichen Anmerkungen erläutert*, 7 Bde., Ulm 1731-36.

- Conrad, Sebastian: *Globalgeschichte. Eine Einführung*, München 2013.
- Cooper, David E.: *World Philosophies.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1996.
- Dasgupta, Surendranath: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5 Bde., Cambridge 1922.
- Deutsch, Eliot (Hg.): *Introduction to world philosophies*, New York 1997.
- Deutsch, Eliot / Ronald Bontekoe (Hg.): *A companion to world philosophies*, Malden Mass. 1997.
- Elberfeld (2017 a), Rolf (Hg.): *Philosophiegeschichtsschreibung in globaler Perspektive*, Hamburg 2017.
- Elberfeld (2017 b), Rolf: *Philosophieren in einer globalisierten Welt. Wege zu einer transformativen Phänomenologie*, Freiburg i. B. 2017.
- Elberfeld, Rolf: *Was ist Philosophie? Programmatische Texte von Platon bis Derrida*, Stuttgart 2006.
- Fakhry, Majid: *A History of Islamic Philosophy*, New York, 1970.
- Feng, Youlan (馮友蘭): *Zhongguo zhhexueshi (中国哲学史 Geschichte der chinesischen Philosophie)*, Bd. 1, Shanghai 1931, Bd. 2, Shanghai 1934.
- Garfield, Jay L. / Edelglass, William (Hg.): *The Oxford Handbook of World Philosophy*, Oxford 2011.
- Hasse, Dag: *Success and Suppression. Arabic Sciences and Philosophy in the Renaiss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 Holenstein, Elmar: *Philosophie-Atlas. Orte und Wege des Denkens*, Zürich 2004.
- Jacob, André (Hg.): *Encyclopé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UNESCO, 4 Bd., Paris 1989-1998. Jaspers, Karl: *Die großen Philosophen*, München 1957.
- Johnson, Scott Fitzgerald (Hg.): *The Oxford Handbook of Late Antiqu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Mersmann, Birgit / Kippenberg, Hans G. (Hg.): *The Humanities between Global Inte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Berlin 2016.
- Nakamura, Hajime: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Japanese Thought, A.D. 592-1868*, 2 Bde., Tōkyō 1969.
- Nakamura, Hajime: *Parallel developments. A comparative history of ideas*, Tōkyō 1975.
- Osterhammel, Jürgen: *Die Verwandlung der Welt. Eine 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München 2009.
- Park, Peter K.J.: *Africa, Asia, and the history of philosophy: racism in the formation of the philosophical canon, 1780-1830*. Albany 2013.

- Plott, John C.: *Global History of Philosophy*, Bd. 1-5, New Delhi 1963-89.
- Reinhard, Wolfgang: *Die Unterwerfung der Welt. Globalgeschichte der europäischen Expansion 1415-2015*, München 2016.
- Sandvoss, Ernst R.: *Geschichte der Philosophie*, 2 Bde., München 1989.
- De Sousa Santos, Boaventura: *Epistemologies of the South. Justice Against Epistemicide*. London: Routledge 2016. 11
- Scharfstein, Ben-Ami: *A comparative history of world philosophy. From the Upanishads to Kant*, Albany 1998.
- Schneider, Johannes Ulrich: *Die Vergangenheit des Geistes: eine Archäologie der Philosophiegeschichte*. Frankfurt am Main 1990.
- Schilling, Kurt: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Berlin 1964.
- Schwegler, Albert: *Geschichte der Philosophie im Umriss. Ein Leitfaden zur Uebersicht*, Stuttgart 1848, 17. Aufl. 1950.
- Smart, Ninian: *World philosophies*, London 1998.
- Solomon, Robert C.: *From Africa to Zen. An Invitation to World Philosophy*, Lanham 1993.
- Wimmer, Franz Martin: *Interkulturelle Philosophie. Geschichte und Theorie*, Wien 1990.
- Wimmer, Franz Martin: „*Philosophiegeschichte in interkultureller Orientierung*“, in: Polylog.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s Philosophieren 3 (1999), S. 8-20.
- Wimmer, Franz Martin: „*Unterwegs zum euräqualistischen Paradigma der Philosophiegeschichte im 18. Jahrhundert. Barbaren, Exoten und das chinesische Ärgernis*“, in: *Philosophiegeschichtsschreibung in globaler Perspektive*, hg. v. R. Elberfeld, Hamburg 2017, 167-194.
- Wundt, Wilhelm (Hg.): *Allgemeine Geschichte der Philosophie*, Berlin und Leipzig 1909, zweite vermehrte Aufl. 1923.